

몽골~바이칼호 여행기(2005. 8. 8~15)

인문대학 고영근

작년부터 가리라 마음 먹었던 몽골~바이칼 여행이 드디어 실현되었다. 아내는 프로그램을 보더니 자신이 없다고 하여 혼자 가기로 하였다. 4박에 해당하는 옷돈을 더 주고 싱글로 예약하였다. 주관 여행사는 교육문화회관 여행사업부. 가기 전에 여행사에서 보낸 자료와 운동재 박사가 준 정재승의 『바이칼 — 한민족의 시원을 찾아서』(정신세계사, 2003)를 읽었고 돌아와서는 춘원(春園) 이광수(李光洙)의 『유정』(1933), 『나의告白』(1948), 「多難한 半生의 途程」(수상) 등과 램스테트 박사의 『일곱차례 동방여행』(1986), 국민대 주종연 교수의 시집 『방랑자의 노래』(2002)을 읽었다. 이들 자료를 참고하여 몽골~바이칼의 여행기를 엮기로 한다. 비용은 190만 원 정도. 이 속에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

8/8(월), 오후 4시에 인천국제공항 3층 9번 출입구에서 모임. 여행사 직원은 모두 68명을 2팀으로 나누어 움직인다고 하였다. 비행기는 몽고 여객기 OM302. 6시경에 출발함. 나는 혼자라 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두 번 양보. 마지막 양보한 사람은 다음날 울란바토르 점심 식당에서 알고 보니 서울대학교 체육과 출신의 역삼여중 교사이고 남편은 한강전자원예고등학교 정한교 교감이었다. 여행이 끝날 때까지 짐을 들어 주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는 일이 많았으며 사진도 같이 찍기도 하여 정이 들었음. 일행은 초·중등학교 교사가 대부분이었고 대학

교수는 명지대학교에서 정년한 법학 전공의 나보다 두 살 위인 아주머니 한 분과 나뿐이었다. 그리고 73세의 사업하는 분도 부인과 동행하여 다행히도 내가 최고령자는 아니었다.

나는 기내에서 가져 간 조정래의 『태백산맥』 마지막 권을 다 읽었다. 휴전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군의 소탕전으로 궤멸되는 지리산 공비의 처참상이 눈 앞에 떠올랐다. 중학교 3학년 겨울에 마산에서 집에 가느라고 지나가는 군용트럭을 향하여 손을 들었더니 충북 출신의 운전병이 친절하게 자기 옆에 태워 주었다. 우리 형님과 동갑으로 당시 24세였다. 지리산 공비 토벌차 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작품을 읽으니 50여 년 전에 지리산으로 달려 가던 국군장병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전에 읽은 이병주의 『지리산』, 이 태의 『남부군』이 『태백산맥』과 같이 모두 한국 동란시의 남로당과 그 동조세력과의 투쟁상을 소재로 한 실기적 문학작품이었다.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려 시내로 버스 타고 들어감. 말이 공항 고속도로이지, 우리의 1950년대 중반의 공항 국도와 다름없었다. 밤 10시인데도 바깥은 대낮과 같이 밝았다. 나는 1984년 영국의 북부 도시 에딘버러에서 백야를 처음 보았고 1995년 북유럽(스웨덴, 핀란드) 여행시에도 백야를 체험하였다. 가이드는 몽골대학에서 유목민족사를 연구하고 학위를 받은 동국대학교 사학과 출신의 김박사와 몽골 출신의 청년. 몽골인 가이드는 한국에 온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말을 비교적 정확하게 구사하였다. 몽골정부에서는 한국행을 좀처럼 승인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번 가면 불법체류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옛날 우리가 일본에 가면 불법체류를 많이 하여 외교 문제화되던 일이 생각이 나다. 공항에서 20여 분 거리에 있는, 일급호텔이라고 하는 바얀골호텔에 투숙함.

8/9(화). 식사 후 두 대의 버스에 분승하여 시내 관광에 나서다. 그 사이 몽골은 소연방 붕괴 후 옛 문자체계를 부활한 줄 알고 있었는데 여전히 키릴문자를 쓰고 있었다. 김박사에 의하면 소비에트 연방 붕괴 후 옛 문자 부활을 시도하다가 중지하였다고 함. 키릴문자에 익숙해 있는 젊은이들의 반발이 거세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나는 옛날 학부 시절에 익힌 키릴문자에 대한 지식으로 간판 정

도는 입을 수 있었다.

울란바르트 인구는 150만, 변두리에는 시골에서 온 빈민들이 산다고 함. 몽골의 총인구가 250만임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수도에 집중하여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변두리 집은 우리의 옛날 판자집과 다름이 없었다. 거리에 운행되는 대부분의 택시, 승용차는 한국의 현대자동차였다. 한국에서 폐차시킨 중고 자동차를 이곳에서 수입하여 재활용하고 있다. 버스도 한글 간판이 붙은 것이 수두룩하였다. 월남과 캄보디아와 같았다.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보았다.

산꼭대기에 자리잡은 자이승 승전탑에 오르다. 사회주의를 수용하고 동시에 2차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을 무찌르는 소련군의 모자이크가 조각되어 있었다. 독일인 관광객을 만나 오랜만에 독일어로 이야기하다. 베를린에서 소규모의 단체 여행을 왔다고 한다. 이들은 봉고차를 타고 다니면서 오붓하게 관광을 즐기었다. 일본사람도 같았다. 우리는 일본의 70년대의 여행 풍속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려야 소규모의 관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버스 타고 내려오는 길에 세브란스 2회 졸업생으로 몽골 마지막 활불(活佛 — 라마교의 수장)의 주치의 노릇을 하였던 이태준(李泰俊) 열사 기념공원을 차창 밖으로 보다. 당시 유행하였던 화류병을 고쳤다고 하여 몽고 정부에서 이렇게 기념공원을 세워 놓고 있다. 경제학자이자 한글학자였던 이극로(李克魯) 박사의 기행문 「中國上海의 大學生活」(『조광』 5, 1936)을 보면 이극로 박사는 이태준 열사와 함께 1920년 10월 북경에서 고륜(庫倫, 지금의 울란바토르)과 시베리아를 거쳐 독일로 가려다가 백당(白黨)의 난으로 장가구(張家口)에서 북경으로 되돌아왔으나 이태준은 혼자 고륜으로 갔다가 백당군에게 잡히어 참살을 당하여 뼈도 찾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극로 박사는 70대 중반 이후의 웅만한 식자들이면 귀에 익은 한글학자이다. 베를린대학에서 공업경제학으로 학위를 받았으며 귀국하여서는 우리말과 글을 지키는 일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이라 믿고 조선어학회를 재건하여 우리말과 글을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견인차 노릇을 하였다. 해방 후에는 김구 선생의 남북 협상 때 건민회 대표로 평양으로 갔다가 그곳에 머물러 조선어문연구회를 창립하였고 뒤에는 문화어운동을 주도하여 북한의 우리말 순화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몽골의 통합학교 견학. 초·중·고등학교가 한 교정에 있고 고등반에서는 여러 외국어를 가르친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져온 학용품을 선물로 내 놓았다. 이어 역사 박물관 구경함. 징기스칸 시대의 역사와 의복 등이 진열되어 있었음. 점심은 한국식당에서. 앞에서 말한 정교감 부부와 정식으로 명함을 주고 받으며 인사함. 담배 피울 때도 나를 피하고 짐을 들어 주기도 하였다. 부부 모두 예절이 바르고 교양을 갖추었다. 울란바토르역으로 가서 기차 기다림. 소나기가 와서 역사 안에서 출발시간을 기다리다. 조금 후 울란바토르발 모스크바행 기차가 구내로 들어옴, 객차가 20여 개. 한 나라의 수도의 본역이 마산역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되어 보였다. 동유럽에 서방 자본이 들어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듯이 몽골에도 언젠가는 한국자본이 들어올 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8/9~8/10(화~수). 오후 2시경에 기차 출발. 우리 일행은 객차 2량을 차지하였다. 나는 4인 1실의 쿠페에 정교감 부부와 한 몽골 여인과 같이 자리 잡았다. 기차 양쪽에 펼쳐지는 끝없는 초원은 풀을 뜯는 소와 말, 양떼로 점철(點綴)되어 있었다. 저녁밥은 한국식당에서 맞추어 온 김밥을 주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먹을 빵과 음료수도 미리 주었다. 정교감은 손짓과 숫자로 필담하여 몽고 여인의 나이와 자녀 숫자까지 알아내는 기지를 발휘하여 웃음꽃을 피웠다. 나중에 가이드에게 물어 보니 모두 맞았다. 몸짓언어만으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체험하였다. 창문은 커튼이 있기는 하였으나 걸치는 막대기가 온전치 못하여 창문을 올릴 수 없었다. 그러니 차 안이 찝통을 면할 수 없었다. 다른 객차는 우리 객차보다 더하였다고 불평불만이 대단하였다. 모두 우리의 50년대 수준이었다. 그리고 군데군데 창문에 못을 치기도 하여 손을 대기조차 어려웠다. 나는 잠들기 전에는 복도 보조의자에 앉아 차창 밖 풍경을 구경하였다. 갖가지 색깔의 들꽃이 인상 깊었으며 산딸기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이 이색적이었다. 기차가 잠시 머무는 동안에 딸기를 따오는 일행도 있었다. 우리 것보다 시었다. 기후 탓이리라. 기차는 역 아닌 곳에 머물다가 움직이는 것이 예사였다. 역에서 쉴 때에는 카페테리아에서 맥주를 사오는 사람도 있었다. 쉬엄쉬엄 쉬어 가면서 달리는 것이 몽골발 시베리아 횡단철도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다.

나는 논산에서 왔다는 동갑내기 종씨 아주머니와 창밖을 내다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생일은 1936년 1월, 나보다 1년 먼저 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 20살에 여학교를 졸업하고 교직에 발을 디디어 42년간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하였다고 하였다. 나도 여행을 적게 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남미까지 갔다 왔으니 그녀의 여행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나누어 주는 이불과 베개를 베고 잠자리에 들었다. 솔직히 말하면 시설과 분위기는 인도 여행시가 더 나았다. 아래칸 양쪽에는 나와 정교감이 마주 놓고 위칸에는 정교감 부인과 몽골 여인이 누웠다. 정교감이 어떻게 코를 고는지 잠을 들일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에 그 이야기를 하고 한 바탕 웃었다. 나도 코를 많이 고는 편인데 정교감에 비하면 저리 가라였다.

6시경에 일어나 화장실에서 간이세수를 하고 식사를 하였다. 나는 혈당이 조심스러워 집에서 가져간 소면을 뜨거운 물에 타서 먹었다. 평소에 라면을 즐기지는 않았으나 여행 중에 먹으니 그런대로 먹을 만하였다. 열차에는 뜨거운 물이 늘 나오고 있어서 라면이나 커피를 끓여 마시기가 매우 좋았다. 몽고의 국경도시 수흐바타르와 러시아의 국경도시 나오사카를 통과하는 데만 3시간이 소요되었다. 러시아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는 것을 2001년 모스크바 여행시에 겪기는 하였으나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줄은 몰랐다.

지도만 보면 울란바토르에서 이르쿠츠크까지 멀게 느껴지지 않았으나 장장 25시간이 걸렸다. 하루가 넘는 시간이었다. 나의 기차 여행 중 가장 긴 여정이었다. 1977년 여름, 북서부 독일 보훔에서 비엔나까지는 15시간, 1994년 가을, 보훔에서 스톡홀름까지는 19시간, 2001년 겨울, 뉴델리에서 켈거타까지는 18시간이 걸렸었다. 브라트 공화국 수도 울란우데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본선과 합류하였다. 단선이었던 철도가 복선으로 바뀌었다. 차의 속력이 많이 빨라졌다.

1930년대 우리나라에서 시베리아로 가는 철로는 나중에 알고 보니 ‘북경--울란바토르--이르쿠츠크--(모스크바)’, ‘신의주--심양--하얼빈--치치하르--하이리얼--홍안령--만주리--치타--이르쿠츠크’, ‘원산--청진--올라디보스토크--하바로브스크--치타--이르쿠츠크’의 세 갈래가 있었다. 이광수의 『유정』의 남자 주인공 최석과 여자 주인공 남정임, 그리고 최석의 딸 순임은 둘째 노선을 택하였다. ‘나’로 대표되는 삼청동 아저씨 N은 ‘여의도--대련--봉천

(심양)--신경(장춘)--하르빈--지지하르--만주리' 까지 항로를 이용하다가 거기서 이르쿠츠크까지는 열차를 이용하였다. 나는 30년대 초에 동아시아에 이렇게 항로가 개설된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아마 소규모의 비행기가 도시와 도시를 연결시킨 것이 아니었던가 한다.

러시아 경내에 들어서자 자작나무가 철로 양 옆에 삼렬(森列)하여 있었다. 자작나무는 일본어로는 '白樺' 라고 하며 러시아의 '국목'(國木)이라고 하였다. 1953년경 고교 2학년 시절에 이광수의 『유정』을 읽은 기억이 있다. 이 작품은 10여년 전에도 읽은 일이 있다. 자작나무에 대한 이광수의 기록이 『유정』에 나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다시 보니 시베리아의 눈에 대한 서술은 있어도 자작나무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다시 이광수의 『그의 자서전』을 펴 보았다. 고등학교 시절에 읽은 기억을 더듬었다. 자작나무는 러시아어로 '베료즈' 라고 한다. 러시아 사람들은 오월 초하루날이 되면 자작나무가 파릇파릇 피는 들판에서 하루를 즐긴다는 것이었다. 기나긴 겨울에 갇혀 있던 남자, 여자, 아이들이 넓은 하늘과 땅 사이에 나와서 먹고 마시면서 실컷 봄을 즐기는 것이다. 춘원 이광수는 러시아의 이런 풍속을 우리나라의 답청(踏青)이나 일본의 사꾸라 철의 행락에 비유하였다.

울란우데에서 한 시간쯤 달리자 저 유명한 바이칼호가 눈 앞에 그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었다. 1977년 여름 아내와 함께 알프스를 거쳐 로마로 갈 때 눈으로 덮인 알프스산을 보고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온 탄성이 바이칼호를 보는 순간 다시 터져나왔다. 사람의 힘이 위대하다고는 하지마는 자연의 힘에 비길 수 있을까. 바이칼호를 옆에 끼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여행하는 것이 바이칼호 여행의 백미(白眉)라는 여행사의 선전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남한의 1/3의 넓이. 오른쪽은 바이칼호, 왼쪽은 삼립한 자작나무 숲, 러시아 전체가 자작나무로 뒤덮여 있는 풍경은 필설(筆舌)로 다하기가 어려웠다.

자작나무는 2001년 여름의 모스크바-레닌그라드 역사 기행에서도 많이 본 몸동아리가 흰 버드나무과의 다년생 식물. 벽난로의 연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돌아오기 하루 전날 몽골의 켈에서 잘 때 자작나무 장작을 피워 추위를 면하였다. 점심은 울란우데에서 접숙한 식당차에서 러시아식으로 하다. 나는 고기는 거의 입에 대지 않았다. 웬지 입맛이 당기지 않았다. 여행중에는 늘 혈당이 오른다.

혈당 측정기를 이용하면서 조절하지마는 잘 내려가지가 않는다.

3시경에 이번 여행의 중심지인 대망의 이르쿠츠크에 도착하였다. 이르쿠츠크는 알려진 바와 같이 춘원 이광수의 중편소설 『유정』의 무대이다. 실제로 『나의 고백』(1948)을 보면 이광수는 1914년 제정 러시아 시절의 바이칼주의 수도였던 치타를 왕복하면서 인상을 적은 것이 바로 『유정』이라고 하였다. 사실 춘원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1914년 2월에 치타에 도착하여 『정교보』(正敎報)의 주필을 맡았다. 당시 앞서 언급한 한글학자 이극로 박사는 바로 치타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춘원이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도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이극로 박사에게 준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다(박계주·곽학송, 『춘원 이광수』, 삼중당, 1962, 193쪽). 춘원은 이박사가 서간도에서 4천리나 되는 길을 걸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지력에 감복하였으며, 조선어학회(지금의 한글학회) 간사장으로서 학회를 수십 년간 지켜 온 것이 바로 그 고집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소감을 적었다. 고등학교 시절, 절친한 벗이었던, 오래 전에 유명을 달리한 경남 의령 출신의 이상찬 군(전 대우엔지니어링 이사)은 항상 의령이 낳은 세 인물로 이극로, 안호상(초대 문교부장관), 신성모(초대 국방부장관)를 들었으며 특히 이극로 박사는 짚신을 신고 축지법을 써서 시베리아를 거쳐 독일 유학을 갔다는 이야기를 자랑삼아 들려 주곤 하였었다. 이는 물론 사실과 다르지만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청·장년 시절을 살아 왔고 해방 후에는 북한으로 간 이박사의 파란만장한 생애가 위와 같은 신화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이광수도 조선어학회를 수십 년간 지켜 온 인내력으로 볼 때 걸어서 독일로 갔으리라고 생각하고 싶을 정도라고 하였으니 이런 신화가 탄생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유정』의 남자 주인공 최석이 자신의 친구인 ‘나’, 곧 삼청동 아저씨에게 이르쿠츠크의 바이칼리스코라는 시골 우체국에서 편지를 부치기도 하였고, 남정임과 최석의 딸 순임이 바이칼호 어느 구석에 은신하고 있는 최석을 찾아 헤매기도 하였으며, 최석의 친구인 ‘나’가 친구인 최석을 찾아 헤매기도 한 명작의 고향이다. 최석이 누워 있던 집, 정임이 주인 노파와 함께 F역으로 최석을 찾아 가던 곳도 이르쿠츠크이며 순임이 자기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나’에게 돈 가지고 오라고 편지를 부친 B호텔도 이르쿠츠크에 있었다. 이 호텔은 ‘나’가 최석을 찾아 이

르쿠츠크에 왔을 때 노파를 만나 최석의 안부를 묻던 곳이기도 하였다. F역은 이르쿠츠크에서도 삼십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나는 B호텔과 F역, 그리고 최석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곳을 탐색하여 한국 사람들의 여행 탐방처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머물렀던 바이칼호텔이 바로 B호텔이 아니었는지? 이르쿠츠크는 핀란드의 알타이 어학자이며 『한국어문법』(1939)과 『한국어어원론』(1949)을 저술한 람스테트 박사가 1898년 10월 말 가족과 함께 한 호텔에 짐을 풀고 아직 얼음이 얼지 않은 바이칼호 일대를 여행하던 곳이기도 하였고(고송무 역, 앞의 책, 17-24쪽), 주종연 교수가 자기 조상의 뿌리를 찾으러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여행하면서 읊은 ‘이르쿠츠크에서’의 무대이기도 하였다. 주교수는 자신의 조상이 여진인임을 늘 자랑하곤 한다.

몽골인 가이드는 몽골로 돌아가고 대신 연세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다는 러시아인과 교환 학생으로 와 있는 중앙대 학생 2명이 가이드를 맡았다. 김박사는 시종 우리와 같이 행동하였다. 한 학생은 세인트 페테스부르크에서 8일 동안 기차로 왔다고 하였다. 양가라 강변에 자리잡은 이르쿠츠크에서 제일 시설이 좋다는 바이칼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시내 관광에 들어서다. 이르쿠츠크는 원래 몽골인 종인 브라트 사람들의 정착지였는데 러시아의 동방정책에 따라 17세기부터 백계 러시아인이 이주하기 시작하였으며 ‘데카브리스트’(유배자)들이 이곳으로 유형을 음에 따라 유럽과 같은 도시로 성장하여 ‘시베리아의 파리’로 불리게 되었다. ‘데카브리스트’란 말은 제정 러시아 정부의 부패부정을 종식시키고자 쿠데타를 도모한 일군의 젊은 장교를 부르는 말이다. 이 도시가 ‘시베리아의 파리’로 불려진 것은 바로 남편을 따라온 부녀들과 협동하여 가꾼 노력의 결실이다. 몽골과 같이 여름은 우리나라와 시차가 없었다. 원래는 한 시간 늦지만 서머타임을 실시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짐을 풀고 양가라 강변에 있는 오벨리스크를 보다. 양가라강을 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침탑비였다. 광장에는 1916년에 완공된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기획자 알렉산더 3세의 동상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바이칼은 300여 개의 지류에서 흘러드는 물을 담고 있지만 흘러나가는 곳은 오직 양가라강 하나뿐이다. 유속이 급하여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 나는 아침 저녁으로 바이칼호텔에서 오벨리스크

크까지 조깅을 하였다. 첫 날을 제외하고는 3박 하는 동안에 비가 와서 따가운 햇볕은 피할 수 있었다. 이어 오벨리스크 바로 정면에 있는 칼 막스 거리 산책. 도처에 중세 유럽풍의 건물이 산재해 있었다. 1995년에 중국 조선족 교사 강습차 들렀던 하얼빈에도 러시아풍의 건물이 산재해 있었다. 하얼빈은 19세기 말에 러시아가 동방정책의 거점으로 삼아 만든 유럽풍의 국제자유도시였다.

8/11(목), 아침 식사 후 이르쿠츠크에서 68여 킬로 떨어진 리스트비양카의 바이칼호수로 가다. 아침부터 비가 많이 내리다. 우리의 시골 국도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고속도로를 1시간 남짓 달려 바이칼호반에 도착함. 고속도로 좌우는 자작 나무가 삼립해 있었고 사이사이 일직선으로 자란 붉은 빛깔의 소나무가 듽섬듬성 끼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 동해안 지대에서나 볼 수 있는 소나무들이다. 먼저 샤먼 바위를 보았다. 바이칼호와 앙가라강의 경계선이다. 바이칼 할아버지는 딸 앙가라를 이르쿠트라는 청년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하였는데 그녀는 에니세이라는 청년을 사랑하여 도망한다. 격분한 할아버지가 던진 큰 바위에 앙가라가 깔려 죽어 샤먼바위가 되었다. 지금도 앙가라는 에니세이를 그리워하여 눈물을 흘리지마는 얼마 안가 에니세이와 만나게 되어 그들의 사랑이 성취되었다는 전설이 전해 온다. 앙가라강의 하류가 바로 에니세이강이기 때문이다.

바이칼호수 박물관 구경. 순록의 박제품이 인상 깊어 사진을 찍다. 다음으로 니콜라이 식당을 구경하고 전원마을을 구경하다. 시골인 탓인지 여자들은 손으로 빨래를 하고 있었다. 세탁기가 보급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이 지역의 시골은 우리의 1960년대와 큰 차이가 없어 보였다. 넓은 대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부러웠다. 중고차 등의 고물을 수리하여 파는 집도 있었다. 사진을 못 찍게 하였다. 호반의 러시아 식당에서 점심을 하였다. 바이칼호에서만 잡힌다는 특유한 생선인 '오물'을 반찬으로 삼아 점심을 먹었다. 생각만큼 그렇게 맛이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가져온 고추장과 깻잎을 가지고 입맛을 돋구었다. 식당 근방의 선착장 시장이 볼 만하였다. 바이칼호는 이 지역 주민의 생계의 터전이라는 사실을 절감하였다.

점심을 먹고 선창에서 맞은편까지 두 시간에 걸쳐 왕복하는 배를 탔다. 비가

뿌리다. 일행은 햇볕에 그을리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다. 그러나 물결을 가르고 망망대해를 달리는 유람선의 정취는 느낄 수 없지 않은가! 맞은편 호반에 내려서 탁족을 하기도 하고 세수도 하였다. 한 여름인데도 물이 매우 차다. 손을 한번 물에 담그면 수명이 5년 연장된다는 말이 있다고 가이드가 설명한다. 다시 원래의 선착장으로 돌아와서 체르스키 전망대에 오르다. 안개가 가득 끼어 앞을 볼 수 없다. 그래도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리프트를 타고 정상으로 올랐다. 나는 논산서 온 종씨 아주머니와 함께 짝이 되어 정상으로 올라갔다. 여기도 안개가 잔뜩 끼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바이칼호의 장엄한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터인데 아쉽게 그지없다. 커피집에서 따끈한 커피를 한 잔 사 마시니 한기가 한결 덜 하였다. 하산시에는 걸어 내려왔다. 이름 모를 들꽃이 이역 만리에서 온 나그네를 반겼다. 중간에 러시아 부인 두 사람을 만나 영어와 독일어로 말동무를 삼았다. 주로 러시아의 외국어교육을 화제로 삼았다. 초등학교 고급학년서부터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선택하여 배운다고 하였다.

저녁 먹고 앙가라 강변에 자리 잡은 키로프 광장으로 가서 ‘꺼지지 않는 불’을 보다. 이 불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파시스트와 싸우다가 죽은 시베리아 용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1975년 5월에 세웠다고 한다. 신혼부부들이 와서 사진을 찍는 관경이 불 만하였다. 러시아는 하루에 100명이 결혼하면 100명이 이혼한다는 말이 돌 정도로 이혼율이 높다고 한다. 바가야블레니아 성당, 스파스까야 성당 등 러시아 정교 성당을 보다. 독일 등의 유럽 등지에서 본 성당에 비하여 규모가 너무 작았다. 유형민들의 성당이니 그럴 수밖에 없어 보인다.

8/12(금), 원래의 계획은 이 날 기차로 우리가 왔던 철로를 따라 울란바토르로 가게 되어 있었으나 여정이 바뀌어 항로를 이용하게 되어 우스트 아르진스키 민속촌과 브라트 공화국을 더 보기로 하였다. 아마 예상외로 사람이 많아 그 비용으로 비행기를 이용하기로 하고 러시아에서 이틀을 더 머물기로 한 것 같다.

9시경에 1시간을 달려 우스트 아르진스키의 탈찌 민속촌을 보다. 앙가라 강변의 넓은 초원에 자리잡고 있었다. 탈찌 민속촌은 에벤키, 브라트인 등 원주민과, 17세기 이후 이주해 온 백계 러시아의 생활상을 복원하여 놓은 야외박물관이다.

군데군데 물레방아가 보이고 인상 깊었던 것은 작수밭 비슷한 버팀목 위에 시체를 놓아 바람에 썰게 하는 풍장 풍습. 황동규 교수의 시집 『풍장』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보길도에 풍장의 습속이 있다고 한다. 안에는 각종 민예품을 파는 가게가 즐비해 있었다. 러시아 가이드의 조언을 받아 이 지방의 민요 CD 한 장 사다. 러시아 가이드의 말로는 오래 동안 타향을 헤매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젊은이의 심정을 노래한 것이라고. 그 노래를 부른 여가수가 노래를 실연해 보였다. 1달러를 주어 사례하다. 나는 관광 상품 시장에서 탈찌 민속촌의 지도를 한 장 샀다.

이르쿠츠크로 돌아와 고려인이 운영하는 서울식당에서 점심 먹다. 고려인은 보이지 않고 전부 백계 러시아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방 전체가 중국 그림과 액자로 가득차 있었다. 음식도 모두 중국 것. 이곳에서도 고추장과 깻잎을 내어 서로 나누어 먹다.

오후에는 데카브리스트 트루베츠크이 박물관을 보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데카브리스트’는 제정 러시아의 부패상을 규탄하다가 쫓겨난 군인장교를 가리키는데 데카브리스트 중 한 사람인 세르게이 트루베츠크이가 모든 재산과 사회적 지위가 박탈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시베리아로 온 부인과 함께 살던 집이다. 부인은 아기까지 두고 10년 동안 6,000리를 걸어 유형수 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을 찾아왔다고 한다. 당시의 가구, 족쇄, 앨범 등이 진열되어 있었다.

즈나멘스키 수녀원을 보다. 이곳에는 데카브리스트의 난으로 유배되어 죽음을 맞이한 귀족들의 묘가 있다고 하는데 보았는지 기억이 없다. 가이드가 경험이 적어 볼거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아 불만이 많았다. 그리고 10일에는 수리중으로 보지 못한 칼 막스 거리의 향토박물관을 보았다. 이르쿠츠크 지역의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역사적 사건이나 생활상을 그림과 실물로 전시해 놓았다. 순록의 박제품 앞에서 사진 1장을 찍었다. 저녁은 호텔에서 먹다. 오늘은 앙가라강 하류쪽으로 조깅을 한다.

저녁에는 태백산맥을 완독하였다. 악인의 표본인 염상구가 빨치산인 그의 동생 염상진의 이중 처형 장면에서 인간애의 일면을 느끼다. 우리의 역사가 바로 서러면 좌우의 시각에서 역사를 조명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조정래는 정말 큰 일을 한 작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작년 터키 여행에서 읽다

만 괴테의 파우스트 2부를 읽기 시작하였다.

8/13~14(토~일), 오늘은 브라트공화국의 명승지 아르산에 들어서 내일 14일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몽골로 간다. 9시부터 10시 사이에 중앙시장을 둘러 보다. 우리의 남대문이나 동대문 시장과 분위기가 비슷하였다. 나는 푸른 사과를 몇 개 샀다. 내가 독일 있을 때 사 먹은 기억이 있어서 버스 안에서 먹으려고 샀다. 일행 가운데는 잣을 사는 사람이 많았다.

바이칼호반을 몇 시간 달리다가 옆으로 빠지는 고속도로를 따라 가는 도중에 내려 소변도 보고 시골 풍경도 구경하다. 어느 나라 없이 여자들을 위한 화장실의 시설이 매우 부족하였다. 조동일 교수는 전에 인도를 여행하면서 여자 화장실은 남자용보다 배가 넓어야 한다고 하였다. 옳은 이야기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같은 것이 보였다. 목재를 실은 화차가 세어 보니 70량이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긴 열차는 러시아 열차가 아닌가 한다.

바이칼호의 어촌마을인 굴뚝에서 내려서 호반에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는 러시아 풍정을 만끽하다. 언덕에서 바라보는 바이칼의 어촌은 한국의 여느 어촌과 차이가 없다. 인종 전시장 같았다. 브라트족 등의 몽골계와 백계 러시아족이 바이칼이 한 눈에 들어오는 언덕에 오물 등의 생선을 퍼 놓고 장사를 한다. 김교감과 교대로 사진을 두어 장 찍다. 버스 안에서 준비해 온 도시락을 먹다. 무엇을 먹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없다. 앞으로는 메모지에 일일이 기록을 해 두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쓸 거리를 기억할 수 없다. 그것도 쉽지 않다. 굵은 내용만 기록하는 것이 기행문이 아니겠는가.

오후 3시경에 마침내 브라트공화국 명승지 아르산에 도착하다. 편도 6시간의 거리였다. 우리와 얼굴이 똑 같은 브라트족이 관광객을 맞이하였다. 관광객을 태우는 말이 많았다. 아스산 산 입구는 온통 관광객으로 들끓고 있었다. 아르산에는 세 폭포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폭포까지 걸어갔다 1시간 안에 사진 찍고 돌아오라고 하였다. 폭포 앞에서 진주서 왔다는 초등학교 여교사 모자와 사진을 교환하면서 찍었다. 아들은 중학교 2학년 우리 광희와 동갑이었지만 키가 너무 작았다. 그것을 보면 광희는 너무 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야기하면서

내려오다가 보니 광천수가 솟는 곳을 잊었다. 나중에 일행으로부터 받아온 광천수를 얻어 마셨다. 사이다 맛이였다.

10여 분 거리에 있는 브라트 야외 식당으로 가서 쌀밥과 꼬치에 꿰어 구운 산돼지 고기를 먹다. 기갈이 반찬이라고 더욱이 야외에서 먹는 고기맛은 다른 음식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광주에서 온 교사 부부가 지난 봄에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한 아들을 데리고 여행 온 것이 한결 돋보였다. 대학생 아들을 데리고 여행하는 것을 보고 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 일에 열중한다고 엄두도 내지 못한 것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잠을 들이려고 하였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2시경에 공항에 도착하여 출국수속을 밟다. 꼭 같은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보자고 하였다. 이르쿠츠크를 왕복하는 비행기는 한국 여행객이 주류를 이루었다. 새벽 5시경에 출발하여 울란바토에 6시에 도착하다. 여행사 이사장이 마중을 나왔다. 모두 울란바토르~이르쿠츠크 구간 열차 시설의 열악함과 관광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가이드 등 불평불만이 여간 아니었다. 한국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한국사람이 운영하는 사우나로 갔다. 말이 사우나이지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바로 울란바토르에서 70여 킬로 떨어진 테를지로 가다. 도중에 몽골에서 가장 크다는 성황당을 보다. 돌로 쌓은 꼭대기에 색형겻으로 치장한 ‘어위’(몽골 샤머니즘)를 구경하고 카메라에 담다. 롤강을 건너 거북바위 구경. 산기슭 군데군데 겻이 우리의 동네 초가처럼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그렇게 살다가 필요하면 겻을 말에 싣고 판 곳으로 옮겨 사는 것이 유목민의 생활이다. 겻 안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사진 찍다. 준비해 온 연필 반 타스를 선물로 주다. 우리는 국민학교 시절에 몽골의 이동식 가옥을 ‘파오’로 배웠는데 이는 중국어이고 몽고어로 ‘겻’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였다.

관광객의 체험 장소로 만들어 놓은 겻에서 짐을 풀었다. 한 겻에는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4년 동안 미술을 공부하였다는 젊은 부인이 가족과 함께 피서하러 왔다가 오늘 오후에 간다고 하였다. 초원에는 말만 듣던 에델바이스가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우리나라는 보호종인데 이곳에는 워낙 많으니 귀한 줄을 모르고 밟거

나 따도 말하는 사람이 없다. 예천에서 왔다는 여교사가 사진을 찍어 주고 서로 교환하기로 하고 명함을 주었다. 두어 시간 사진 찍고 놀다가 4시경에 말무리가 도착하여 승마 체험을 하다. 일행 모두 2킬로 되는 곳까지 갔다가 돌아옴. 작년 실크로드의 우루무치의 길목에 있는 남산목장에서 말을 탄 것이 처음이었는데 올해에도 또 말을 탔다. 73세의 아저씨는 말타는 솜씨가 노숙하게 보여 물어 보니 어렸을 때 승마를 하였다고 하였다. 우리 세대가 승마를 하였다는 것은 보통 가정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여행사측에서 잘못을 헤아려 달라는 뜻으로 몽골 민속 가무단을 초청하여 1시간에 걸쳐 춤과 악기를 공연하다. 5~6세 되는 여자 어린이의 서커스가 볼 만하였다. 모두 감탄하여 특히 여자들은 팁을 톡톡히 안겨 주었다. 몽골의 전통악기 마두금(馬頭琴)을 연주하였다. 마두금은 몽고의 두 줄로 된 찰현(擦弦) 악기다. 무슨 소리든지 다 낼 수 있다고 하였다. 입을 움직여 하모니카처럼 소리내는 것도 볼 만하였다. 모두 사진기에 담았다.

저녁은 허르헝이 나왔다. 이는 몽골 전통요리로서 양고기를 삶은 것이다. 1984년에 내가 보훔에서 사 먹은 양고기는 쇠고기에 비할 바 없는 훌륭한 맛이었는데 조리법이 달라서인지 몽골의 양고기는 비위에 맞지 않아 입에 대는 등 마는 등 하였다. 대신 준비해 온 소면을 먹었다. 식당 종업원 중에는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준비해 온 나머지 연필 반 타스를 선물로 주다.

저녁 9시경에 하늘을 쳐다보니 북극성과 북두칠성의 모습이 어릴 때 보던 그대로 완연하게 보였고 은하수의 별들이 모래를 뿌려 놓은 듯 선명하였다. 켈의 중앙에는 난로가 놓여 있었다. 정교감 부인이 종이를 조금만 넣고 불을 질러도 잘 탄다고 하였다. 신문지 등을 불쏘시개로 삼아 불을 붙이니 금방 불이 붙었다.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난로 굴뚝 사이에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불을 피우니 금방 켈 안이 더워지기는 하였으나 이내 불기운이 스러졌다. 2시와 5시에 일어나서 다시 불을 지폈다. 나중에는 종이가 없어서 가져간 화장지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다 타면 다시 추워졌다. 몽골 사람들은 겨울을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였다. 옆 켈에서 잔 종씨 아주머니는 초저녁에 한 번만 피웠다고 하였다. 잘못 하면 감기에 걸릴 수 있다.